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26	10. 03	10. 10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예배 전 찬양 - 매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2. 선거 - 독일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행합니다(26일) 기도 해주세요
3. 소리 내어 찬송하거나 기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486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복자 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삿 19 : 1 - 5 (구p394) 김복자 권사
 설 교 Predigt 신앙인의 책임의식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488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시무권사

영성을 Upgrade하라

바이올린은 조금만 그냥 두어도 줄이 느슨해져 엉뚱한 소리가 납니다. 조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금방 줄이 느슨해져 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비슷합니다. 또한 라디오는 다이얼이 조금만 움직여도 곧 잡음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이얼이 맞는지 계속 점검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약화되면 판단력까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는 64,400명이라는 큰 규모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가장 큰 유다 지파(76,500명)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주신 기업을 장악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 산으로 쫓겨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발로 디디는 그곳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가서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약속받은 땅이므로 넉넉히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단 지파는 용기와 믿음이 없었기에 자기 몫도 찾아 먹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스스로 취하는 자만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시대도 사사 시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우리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실패의 습관을 끊어라 / 김상복 목사
 (분당 할렐루야교회 원로)

*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는 내게 빈곤이다. - Augustinus(354~430) -